

“주부 스트레스, 음악으로 푼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주부 1천명 대상 조사, 음악·친구와 이야기·쇼핑 순으로 나타나

주부들은 가정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음악 감상이나 노래 부르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서울에 거주하는 만 20세~49세의 전업주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 4차 국민음악감상지수 조사>결과를 보면, 주부들은 스트레스 해소 방법으로 ‘음악감상 / 노래 부른다’가 19.0%로 가장 높고, 그다음은 ‘친구와 만나 이야기한다’(15.8%)’, ‘쇼핑 / 물건사기(9.6%)’, ‘기도한다(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악을 들을 때는 주로 ‘집안일을 하면서’가 전체 69.3%를 차지했고, 그외 ‘독서(4.7%)’,

‘잠잘 때 / 잠 안올 때(3.9%)’ 등이었다. 한편 ‘음악을 들을 때는 다른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11.4%였다.

주부들은 대부분 음악을 라디오를 이용해서 듣고 있는데 주로 많이 듣는 시간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낮시간이며, 저녁 및 심야 청취율은 매우 낮았다. 또 주부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중가요는 <만남(11.1%)>, <보이지 않는 사랑(4.0%)>, <타타타(3.6%)> 순이었고, 팝송은 <Yesterday(7.6%)>, <Unchained melody(2.4%)>, <My way(2.0%)>, 가곡은 <비목(12.9%)>, <선구자(9.2%)>, <목련화(6.9%)> 등이며, 클래식은 <사계(7.9%)>, <운명(3.3%)>, <전원

(0.7%)> 등의 순이며 선호하는 클래식 작곡가는 베토벤(6.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청취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인 노래방 이용실태는 전체 27.4%가 노래방에 가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노래방에 대한 인식도는 56.0%가 ‘좋은 느낌’이라고 했다. 또한 음악회를 통해 음악감상을 하는 경우는 주부 10명 중 1명 꼴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부들의 노래 모임 등의 음악활동 욕구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음악활동을 하고 있는 주부는 전체의 8.4% 밖에 되지 않지만, 약 반수인 45.3%가 음악 모임에 가입, 활동하고 싶은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 조사결과를 통해 보면 대부분의 주부들이 영화, 연극, 미술 전시회 등의 문화생활보다 음악감상 등을 선호하는 이유는 그것이 집안일을 하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부들이 적극적인 음악감상회나 음악 모임에 참여율이 저조한 것을 주부 최윤희(35. 동작구 상도동) 씨는 “바쁜 집안일과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맡길 곳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주부들이 다양하고 적극적인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 시급한 것은 공연장 주변에 임시 놀이방 설치 등 주부관객들을 위한 주최측의 적극적인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